

초고전력 데이터센터 솔루션 찾기 ‘올인’

LG CNS

■ LG CNS가 미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 선점을 위해 신기술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영토 확대를 본격화한다.

AI 전환(AI) 전문기업인 LG CNS는 우선 AI 데이터센터가 초고전력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만큼 이에 특화된 솔루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액침냉각 기술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동시에 데이터센터를 가상으로 구현해 전력 장비와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확보했으며,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통합형 인프라 플랫폼 구축도 완료했다. 또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위한 기술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자체 특허 출원한 ‘빌트업 향온·향습 시스템’ ▲ 공기 순환을 극대화하는 ‘풍도 시스템’ 도입 등이다. LG CNS는 이 같은 친환경 기



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 분야 최고 권위상인 ‘브릴 어워즈’를 수상했다.

LG CNS는 국내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상암 정보기술(IT)센터, 가산센터를 비롯해 미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 거점에서도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며 사업 역량을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LG전자·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 구축하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수행 중이며, 최근 컨설팅·설계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AI 국가대표, 떨어지면 각오해야죠”

‘독자 AI 모델 프로젝트’ 경쟁 후끈

‘소버린 AI’ 개발 5개팀 선발에 사활 1500억대 GPU·정부예산 대폭 지원 1차 10곳 통과, 네이버·LG 앞서나가 ‘원천기술’ 평가 1순위…기업들 신경전

“회사 윗분들로부터 ‘떨어지면 각오해’라는 얘길 듣고 있어서 굉장히 괴롭기도 합니다.”

지난 2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현장 간담회’는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의 발언에 웃음바다가 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선발전에 대한 부담감을 이해한다는 듯 경쟁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재명 정부 인공지능 정책의 핵심인 ‘소버린(자주적) 인공지능’을 개발할 5개 정예팀에 선발되기 위해 국내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30일부터 이를 동안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한 10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2차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진행했다. 각 기업의 ‘원천 기술’이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무대인 데다가, 선발될 경우 구하기 힘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 업체 간 자존심을 건 경쟁에 돌입했다.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인공지능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에 착수하는 5개 기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팀

‘국가대표 AI’ 1차 관문 통과한

컨소시엄 주관사 10곳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에스케이(SK)텔레콤
엔씨 에이아이(NC AI)
엘지(LG) 에이아이(AI)연구원
카카오
케이티(KT)
코난테크놀로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프로젝트 개요

목표	6개월 이내 출시된 글로벌 인공지능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
정부 지원 규모	GPU 1576억원 , 데이터 628억원 , 인재 채용 250억원
선발 규모	5개 정예팀 선발 뒤 단계별 평가 거쳐 최종 2팀 압축 (2027년)

당 그래픽처리장치 500장~1000장(1576억원 규모)을 정부로부터 빌려 쓸 수 있고,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가공 예산을 연간 30억원~50억원 지원받는다. 해외 우수 연구자 등을 유치할 경우 인건비 등도 지원된다.

업계에선 최종 선발될 5개팀 가운데 네이버클라우드와 엘지(LG) 에이아이(AI)연구원의 통과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두 기업은 각각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을 배출한 국내 대표 인공지능 모델 개발사

다. ‘대기업 몰아주기’ 논란을 의식한 정부가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를 고려할 경우 업스테이지가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업스테이지가 최근 선보인 거대언어모델(LLM) ‘솔라 프로 2’는 글로벌 인공지능 성능 평가 기관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평가에서 오픈에이아이, 구글, 메타의 모델 등과 함께 세계 10대 프론티어 모델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다만, 이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phi)-4 모델에 기반해 심층 확장 스케일링(DUS·Deep Up Scaling) 방식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자주적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국내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모델을 설계하고 훈련하는 ‘프롬 스크래치’ 방식의 개발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기업의 모델을 미세조정하는 등 기술의 독자성을 담보할 수 없는 개발사는 선발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개발자들 사이에선 특정 기업의 원천 기술을 둘러싼 의혹 제기 등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일부 기업의 경우 보도자료에서 ‘프롬 스크래치 모델’을 표방하지만, 학회 논문 등을 통해 명확한 개발 방법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발 방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 쪽 주장 이외에는 레퍼런스가 없어 (사실과 다른) ‘프롬 스크래치’란 용어를 마케팅성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한다

정부, 물리 AI 정책 본격화

산학연 전문협의체 조성 추진
주요 제조사, 관련 협회 참여
LLM 넘어 거대액션모델로

中은 이미 2조 규모 펀드 조성
피지컬AI 두고 부처 경쟁 우려도



정부 부처와 주요 정책 기관이 경쟁적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협의체를 조성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0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피지컬 AI 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피지컬 AI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중구난방을 피하기 위해선 차제에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서 426억원 예산 확보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주요 제조 기업과 연구기관, 협회가 참여하는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다음달 말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피지컬 AI 기술 개발과 관련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꾸려지는 협의체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피지컬AI

협회 등이 각각의 역할을 조율하고 있다. ‘물리적 AI’라는 뜻의 피지컬 AI는 AI가 로봇·자율주행 등 시스템에 적용돼 현실 세계에서 구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피지컬 AI 핵심기술 개념 증명(PoC)’ 예산 426억원을 확보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피지컬 AI 산학연 간담회에 참석해 “피지컬 AI는 제조·물류뿐만 아니라 농업·의료·국방 등 산업을 혁신할 차세대 범용 AI 기술”이라며 “제조 등 주력 분야에서 융합 및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피지컬 AI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훨씬 큰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재명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부상 중인 피지컬 AI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

델 개발 프로젝트에서 대규모언어모델(LLM)뿐만 아니라 거대액션모델(LAM)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열어놨다.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최근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휴머노이드 산학관 연합체인 K-휴머노이드연합을 출범시켜 생태계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수준 인프라 조성해야”
민간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로봇 파운데이션모델(RFM) 개발사 마음 AI 등이 중심이 돼 한국피지컬AI협회가 발족됐다. 에이로봇, 라이온로보틱스 등이 참여하는 자율성장 AI휴머노이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도 신설됐다. 로봇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액추에이터, 센서 기술 등을 모두 갖춘 나라는 중국 외엔 한국이 유일하다”며 “공

격적인 투자가 있다면 충분히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점찍고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피지컬 AI 관련 기술 자립 강화를 위한 관세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100억위안(약 2조원) 규모의 피지컬 AI 산업발전 기금을 조성했다.

일각에선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여러 연합체와 정책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정책 혼선을 겪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AI업계 관계자는 “국가AI위원회 산하에 피지컬 AI 분과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거나 별도의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중장기적 국가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했다. 유태준 마음AI 대표는 “단순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집적 시설을 넘은 피지컬 AI 통합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고은이/강해령 기자

빅4 병원, 국가 의료AI 사업 두고 눈치작전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 등
'닥터앤서 3.0' 추가 공모 시작
1차 탈락 고배...재도전 선언
컨소시엄 구성 놓고 판짜기 돌입

국가전략 의료 인공지능(AI) 프로젝트 '닥터앤서 3.0' 추가 공모가 시작되면서 대형병원들이 연합전선 판짜기에 들어갔다. 1차 사업공모에 탈락한 '빅4' 병원 모두 재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컨소시엄 구성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까지 펼쳐지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닥터앤서 3.0 2차 공모가 시작되면서 대형병원 중심으로 입찰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논의가 활발하다.

닥터앤서 3.0은 진단·치료를 위한 AI 솔루션 개발이 목적인 1.0과 2.0 사업에 이어 치료 후 예후관리를 돕는 AI 개발이 핵심이다. 치료나 퇴원 이후 질병 재발이나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해 AI 기반 상태 모니터링, 예측 예측 등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달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을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개발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 예산(추경) 집행으로 40억원을 신규 확보, 이번에 2차 사업 공모를 실시하게 됐다. 2차 사업은 복합질환·재활의학·만성질환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결합 예후관리 AI 서비스 개발이 핵심이다.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 등 '빅4' 병원

은 2차 사업을 버리고 있다. 저마다 독자 또는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사업에 참여했지만 모두 탈락했기 때문이다.

참여 신청 마감 약 2주를 앞둔 가운데 가장 의욕을 보이는 곳은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이다. 1차 사업 공모에서 막강한 연합전선을 꾸리고도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에 아쉽게 패한 만큼 이번엔 전력을 보강해서 반드시 수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기관으로는 고려대안암병원을 주관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차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병원과 카오헬스케어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이 컨소시엄에 합류할 예정이다.

1차 사업공모에서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세브란스병원은 독자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의료원 산하 신촌·강남·용인 세브란스병원이 중심이 돼 다른 거점병원과 파이지털헬스케어 등 의료 정보기술(IT) 회사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병원도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경희대병원과 손잡고 복수 병원, 정보통신기업을 대상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별도의 센싱이나 디바이스를 결합한 질환 관리 서비스 아이디어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평가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아직 상품화가 되지 않았거나 시제품이라도 잠재력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공공기관 AI활용 앞장 전담인력·예산 늘린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AI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AI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AI 도입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운위 산하에 AI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AI 소위는 각 기관의 AI 전략 수립부터 실행 성과 점검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공운위 산하에 AI소위 신설 체계적 관리·경영평가 반영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AI 서포터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AI 도입·활용에 앞장서는 선도 기관을 선정해 AI 도입을 자문하는 한편 우수 사례 확산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AI 전담 인력과 예산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AI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AI 활용 실적도 반영한다. AI 활용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과 함께 공공기관 통합 공시 항목에 'AI 활용 현황'을 신설하고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연내 AI 활용 우수 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기술마켓 내에 'AI 전용관'도 신설할 방침이다. 각 기관의 AI 활용 사례 등을 실시간 공유해 공공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등 AI 활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활성화해 AI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AI 기술이 향상되고 민간 AI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무섭게 퍼붓고 순식간에 불어나 모든걸 앗아간다... AI와 손잡은 인류, 홍수에 맞서다

AI 활용한 홍수 예측과 대응 기술, 어디까지 왔나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자연 앞에 무력하다. 대표적인 게 수해다. 인간은 우주도 가고, 새로운 생명도 만들어내지만 매년 여름 발생하는 홍수를 막지 못한다. 예측하지 못한 홍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한국만 해도 최근 전국에 내린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지난 16일부터 5일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700㎜가 넘었다. 전국에서 2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수마에 집을 잃고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도 수천 명에 달한다. 문제는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예측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환경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지금처럼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하루 최대 강수량은 근미래에 8.5%, 먼 미래에는 36.1% 증가할 전망이다.

원래 한국에도 여름마다 집중호우가 내리기는 했으나, 동남아시아에서나 보던 '스플렉스 호우' 등 순식간에 비가 퍼붓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후위기 영향이 크다. 이런 현상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비가 어렵고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미국 국토 전체에 극한 호우가 내렸고, 텍사스 주를 덮친 홍수로 130명 이상이 숨졌다. 시카고에서도 1000년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비가 쏟아져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모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 예측과 대응책이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준다.

전 세계 많은 과학자가 이 같은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재해 연구에 적극 접목하는 추세다. 기후는 분석해야 할 변수가 매우 많아서 연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AI와 최근 발전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해 복잡한 연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폭우 피해, 즉 침수와 도시 홍수를 방지하는 연구개발(R&D)을 가장 활발히 하는 곳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구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21일 건설현을 방문해 홍수 대응을 위한 R&D 현황을 살펴보고도 했다.

황석환 건설연 연구위원은 최근 AI를 이용해 도시 홍수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호우 예보를 갖고 도시의 어느 지역이 침수 위험이 높은지를 예측하고 경고하는 기술이다. 연구진은 수백~수천 가지의 경우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도시 침수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AI 모델에 학습시켰다. 황 연구위원은 "지역마다 하천의 모양과 상하수도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판 도형으로는 침수 위험을 자세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연구진은 있을 법한 경우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홍수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해 각 경우에 어느 지역이 침수되는지를 파악했다. 이를 학습한 AI 모델은 시나리오에 없는 상황을 맞아도 추론을 통해 높은 정확도로 침수 위험 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기후 예측은 변수가 많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번 AI 모델은 미리 데이터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나서 1~2분 내로 침수 위험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황 연구위원이 주목하는 건 '제갈할 수 있는 AI'다. 그는 "요즘도 매일 재난 알림 문자를 받지만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제갈되지 않는 정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갈할 수 있는 정보기 되려면 훨씬 구체적이어야 한다. 황 연구위원은 "단순히 어느 구가 침수 위험이 높다는 식이 아니라 어느 동네의 어느 놀이터가 침수 위험이 크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알림이 되어야 사람들이 제갈하고 대비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장점은 '설명 가능한 AI'다. 특정 지역

의 홍수 위험이 크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알려줘야 사람들이 납득하고 능동적으로 판단해 대비 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수 예측을 넘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동섭 건설연 연구위원은 디지털로 홍수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도시 홍수를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침수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물받이판 같은 인프라를 어떻게 설치할지를 분석하는 종합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이다.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김형준 연구위원은 "홍수 연구가 어려운 건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을 때"라고 말했다. 도시 홍수는 한번 나면 피해가 커지만, 자주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몇십 년의 자료를 모아도 충분하지 않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는 것도 어렵다. 사람들이 방문하고

자연재해 극복 나선 과학계

AI 활용 홍수예측 R&D 활발

강우 시나리오 수천 개 학습

지역 맞춤형 홍수 위험 경고

제갈할 수 있는 AI 예보 통해

구체적 정보 제공, 판단 도와

각국도 대규모 홍수 대책

중스편지도시, 습지·제방 등

자연환경 활용해 빗물 흡수

네덜란드는 인공 섬벽 확충

댐·해일방벽 짓고 강폭 늘려

위성으로 강 유속 예측까지

조사하는 건 홍수가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침수됐는지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 김 연구위원은 "현장에 남아 있는 먼지 자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다른 대학들도 홍수 피해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김중훈 포스텍 환경공학부 교수는 최근 AI로 지역별 홍수 위험도를 예측한 '전국 홍수 위험 지도'를 만들었다. 전 국을 시군구별로 분석한 이 지도에 따르면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일수록 홍수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은 공통된 특징을 보였는데 주변 하천이 범람의 위험이 있고,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콘크리트 포장 면적이 넓다. 콘크리트는 흙에 비해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흡수되지 못한 빗물이 넘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 연구를 발전시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홍수물막기

위해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제안됐고, 그중 일부는 이미 실현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의 '스펀지 도시'다. 스펀지 도시는 생태 복원을 우선시해서 홍수를 완화하고 도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인공적인 인프라를 늘리기보다 자연을 최대한 이용해 홍수에 대비한다. 중국 정부는 2013년 스펀지 도시 프로그램을 공식 채택해 일부 도시에 도입했다. 하얼빈에 있는 첸리 우수공원은 원래 홍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었지만,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 이후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변했다.

이처럼 스펀지 도시는 습지나 제방을 활용해 물의 흐름을 늦추고, 물을 최대한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 포장 면적을 줄이고, 자연이 머금을 수 있는 용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로스앤젤레스(LA), 오클랜드 등 여러 도시가 스펀지 도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김형수 인하대 사회인프라학과 교수는 지난해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포럼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홍수 같은 수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 기반 해법인 습지 같은 그린 인프라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 습지를 조성하면 홍수 범람 면적이 약 6%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인공 섬벽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 저지대 국가인 네덜란드는 국토의 60%가 해수면보다 낮아 침수 피해가 잦다. 1953년에는 1836명이 목숨을 잃고 7만명의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대홍수 사건도 있었다. 네덜란드는 이를 계기로 대규모 홍수 대응 정책인 '델타플랜'을 시작했다.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6개의 댐과 5개의 해일방벽을 지어 홍수에 대비했다. 지금도 네덜란드 정부는 1300km에 달하는 제방과 500여 개의 수문, 펌프 시설 등을 매년 개선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7년부터 10년간 '강에 여유 주기(Room for the River)' 사업을 실시했다. 강 바닥을 파고 강폭을 넓히는 등 말 그대로 강이 범람하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주는 사업이다. 이에 더해 수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도입해 홍수 위험을 크게 낮췄다. 유량이 많아질 때 물의 일부를 바깥으로 빼내 수압을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강둑이 무너질 우려가 줄어든다.

물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홍수를 예측하는 기술도 새롭게 변하고 있다. 현재 홍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려면 강가나 도로에 있는 센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같은 센서들은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방법을 시도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표수 및 해양 지형(SWOT) 위성을 통해 물의 흐름을 관측하는데, 이 데이터를 홍수 예측에 사용할 수 있다. SWOT 위성은 100m보다 넓은 강을 관측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작은 강까지도 볼 수 있다. 강의 어느 유역이 경사져 있는지, 어디가 유속이 빠르지를 알 수 있다면 어느 부근에서 범람하고 어디가 홍수 위험이 큰지도 미리 알 수 있다.

최원석 기자

전 세계 자연재해 발생 건수



전 세계 자연재해별 사망자 수



*2023년 기준. 자료=국제재난데이터베이스

올해 전 세계 홍수 피해 사례



건설연 도시 홍수 예방 R&D 과제와 목표

지역 특성 기반 홍수 관리	제주도 전역에 상세한 홍수 위험 수준 정보
시나리오 및 AI 기반 홍수 예측	관측소에 홍수 예측 알고리즘 탑재해 예·경보 발령
고정밀 도시 홍수 해석 및 예측	강우, 하천, 상하수 연계해 통합 예측 모형
물막이판 설계 및 자동 제어	물막이판 소형화, 자전력 작동, 방수 기능 탑재
도로 침수 실시간 예측 및 감시	CCTV 이용한 AI 기반 실시간 도로 침수 상황 감시



정부, 예산 180억원 투입해 산업형 AI인재 양성

LG·NC 등과 육성 프로그램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 약 180억원이 투입되는 '생성AI 선도 인재 양성' 사업과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재 양성 사업에는 4년간 66억 7000만원, 연구자 지원 사업에는 6년간 1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두 사업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으로 확보된 AI 관련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인재 양성 사업은 산·학·연 컨소시엄이 산업 현장의 AI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발굴 및 수행해 초격차 생성AI 기술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LG AI연구원은 피지컬 AI 기술 개발을 위한 'LG AI 스타 인재 양성 사업'에 착수한다. NC AI는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시대에 적합한 실무형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인간 중심의 범용 인공지능을 만드는 휴먼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인력 양성에 나선다.

정부는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 연구자들이 석·박사 과정 이후에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연구개발(R&D)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서울대, 성균관대가 주관해 온디바이스 제조 AI·초지능형 AI 에이전트·사람과 AI 간 협력지능형 에이전트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매일경제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A17면 종합

“정부 AI 100조 투자, 제조업 강화에 집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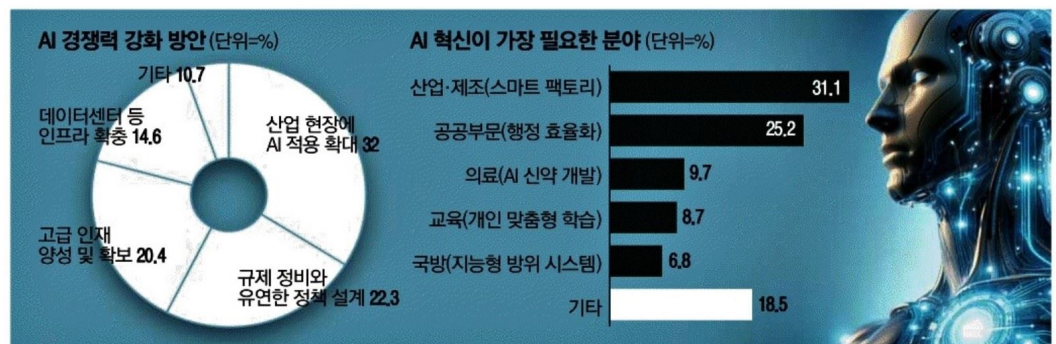
매경-KOSA 기업 103곳 설문

AI 경쟁, LLM서 서비스로 이동
부문별 특화모델 성능이 중요
韓, 제조업 데이터·노하우 우수
세계서 통하는 제조AI 구축 가능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강국'을 목표로 전력 수립에 나선 가운데 현장에서는 자체 모델 개발을 넘어 '버티컬 AI' 생태계 확장에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매일경제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국내 AI 관련 기업 10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조·의료 등 산업 현장에 AI 적용 확대'를 꼽은 기업이 32%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중심이던 글로벌 AI 경쟁 구도가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AI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버티컬 AI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버티컬 AI는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AI 솔루션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라도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데이터를 학습해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와 현장 노하우가 중요하다. 설문문에 참여한 한 기업 대표는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과 콘텐츠 등 분야에서 특화 AI 개발에 집중하면 중



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각자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AI를 발굴하고 상품화하는데 정부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정비 및 유연한 정책 설계'를 우선 과제로 꼽은 기업은 22.3%였다. 업계에서는 특히 데이터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의료 분야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는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 의료 데이터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덕분에 선도적인 AI 헬스케어 기업이 쏟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의료 AI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헬스케어 기업 대표는 "의료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어 법체계가 모호한 데다 AI 기본법 역시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 서비스 개발 단계마다 매번 외부 로펌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

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급 AI 인재 양성 및 확보'(20.4%)도 주요 정책 과제로 꼽혔다. 한 AI 기업 대표는 "인재 육성 관련 구호만 요란할 뿐 대학·대학원 교과 개편이나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공급 매칭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라며 "지난해 기준 국내 AI 석박사 졸업자 중 40%가량이 해외로 유출됐고, 중소·중견기업은 충원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인력들의 AI 직무 전환을 위한 교육비용 지원이나 AI 직무 전환 인력의 고용 유지 인센티브 등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에서 약속한 AI 100조 원 투자를 집행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운 기업이 '산업별 AI 융합 프로젝트'(49.5%)를 꼽았다. AI를 통한 혁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도 '산업·제조'라고 답한 기업이 31.1%로 가장 많았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AI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제조업"이라며 "AI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업무 효율을 크게 개선한 사례로는 LG생활건강이 꼽힌다. LG생활건강은 "기존에는 후보 물질을 선정하는 데 평균 1년10개월이 소요됐지만 LG AI연구원의 신물질 발굴 특화 AI 모델 '엑사원 디스커버리'를 활용해 단 하루 만에 후보 물질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AI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을 묻는 질문에는 '실증 기반의 정책 설계와 신속한 실행'(35.9%), '장기적 비전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25.2%)를 꼽은 기업이 많았다. 고민서·김태성 기자

기업-대학 손잡고 생성형AI로 산업 난제 해결 나선다

AI 산학협력 팀별 구성과 목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동연구기관

- 1. LG AI연구원**(KAIST, 서울대, UNIST, DGIST)
피지컬 AI 생성모델 기술 선도
- 2. NC AI**(서강대, KAIST, UNIST)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인재 육성
- 3. 한국전자기술연구원**(서울대, KAIST, 고려대, 연세대, GIST, 건국대, 세종대)
휴먼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 4. 울산과학기술원**(노타AI, SK에너지, LG AI연구원)
통합지능 온디바이스 제조 AI 개발
- 5. 서울대**(크래프톤, 네이버클라우드, 원익로보틱스)
초지능형 AI 에이전트 개발
- 6. 성균관대**(포티투마루, 아크릴, 에이딘로보틱스)
협력 지능형 AI 에이전트 연구

‘인재양성’ 사업 등 수행기관 선정

LG-카이스트 피지컬AI 기술 개발
NC-서강대 멀티모달AI 에이전트
서울대-크래프톤 초지능형AI 등
“인재 키우는 산학협력 모델 기대”

한국형 소버린(주권)AI 구축을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5개 K-AI 국가대표팀 선정에 앞둔 가운데, 시중에 나와 있는 생성형AI를 적용해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K-AI와 별개로 AI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고 이에 특화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로, LG와 NC, 네이버 등 주요 테크기업들이 학생들과 함께 산업 난제 해결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과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AI스타펠로우십)’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인재양성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사업에는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원장을 지냈던 LG AI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학생들과 피지컬(Physical·물리적) AI 생성모델 기술을 개발한다. 피지컬AI는 센스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꼽을 만큼 미래 산업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다.

NC AI는 서강대, KAIST, UNIST와

손잡고 멀티모달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일 방법을 찾는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은 서울대, KAIST, 고려대, 연세대와 함께 인간 중심의 범용 AI 연구에 나선다. 이들 세 팀에 참여하는 대학은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연구용 연결프로그램(API)과 데이터를 제공받아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공동연구 과정에서 선발되는 우수한 학생들은 기업 파견 기회도 잡을 수 있다.

이 외에 UNIST와 서울대, 성균관대의 박사후연구원이나 임용 후 7년 이내의 젊은 교원에겐 기업과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 UNIST는 노타AI, SK에너지, LG AI연구원과 함께 시각-언어 행동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AI 기

술을 활용한 온디바이스 제조 AI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대는 크래프톤, 네이버클라우드, 원익로보틱스와 손잡고 시공간 데이터와 다감각 정보 기술을 융합한 초지능형 AI 에이전트 개발에 도전한다. 성균관대는 포티투마루, 아크릴, 에이딘로보틱스와 공동으로 사람의 동반자 역할을 할 협력지능형 AI 에이전트를 연구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들 프로젝트가 그간 인재 부족을 우려해온 기업과 실전연구 경험에 목말랐던 대학이 모두 첨단기술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며 인재를 키우는 산학협력 기반 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기초과학 학습해 파형 분석도 척척...美中 ‘AI 과학자’ 경쟁

구글 등 과학연구 특화모델 공개
중도 자체 개발 ‘사이언스원’ 선포
배경훈 장관 “AI 도입 지원할 것”

인공지능(AI)이 일상 언어를 넘어 어려운 수학과 과학 이론을 이해할 정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연구 혁신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올해 초 구글·오픈AI 등 미국 빅테크들이 과학 연구 특화 모델을 선보인

데 이어 중국도 정부 주도로 자체 기술을 개발하며 주도권 경쟁을 시작했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과학원(CAS)은 26일 상하이에서 열린 ‘2025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과학 연구 특화 모델 ‘사이언스원’을 공개했다. 사이언스원은 수학·물리학·화학·천문학·생물학 등 기초과학 전반의 전문 지식을 학습했다. 이를 통해 전기·소리 같은 신호를 그래프로 표현한 현대인 파형

을 분석하거나 스펙트럼·장(場)처럼 과학 논문에서만 다루지는 개념이나 기호를 인식할 수 있다.

사이언스원은 ‘베이징 전자·양전자 충돌기’ 실험 같은 실제 자국 내 연구활동을 효율화하고 있다는 게 CAS 설명이다. 사이언스원은 특히 연구에 필요한 논문 등 문헌 조사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3~5일에서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또 AI 도구 300종을 연구 과제별로

최적화해 지원한다. AI 도구 중에는 구글 답마인드의 단백질 분석 모델 ‘알파폴드’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재 분석 모델 ‘매터젠’도 있다. 단순히 특정 분야 작업을 돕는 모델을 넘어 이들을 통합해 과학 전(全) 분야에 통달한 모델을 연구자에게 지원하겠다는 게 CAS의 구상이다.

중국에 앞서 미국에서도 빅테크 주도로 유사한 기술들이 등장했다. 구글은 올 초 범용 모델 ‘제미니 2.0’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비서) ‘AI 코사이언티스트(공동 과학자)’를 선보였다. AI 코사이언티스트는 연구 목표가 주어지면 슈퍼바이저(관리자)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할을 맡은 전문 에이전트들이 협업해 실험 진행 등을 돕는다. 급성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 후보 물질을 찾는 등 실제 활용 사례도 등장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29일(현지 시간) ‘버추얼랩(가상 연구실)’으로 코로나 19 치료용 물질 나노바디(단일도메인항체) 92종을 새로 설계한 연구 성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버추얼랩은 여러 전문 에이전트들이 모여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문헌 검토 등을 수행하는 AI 협업 시스템으로 지난해 구축됐다.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사이언스온 AI(SAI)’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산학연에 제공 중이다. 챗GPT처럼 연구 관련 질문을 하면 SAI가 논문·특허·연구동향 등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AI 기업 수장 출신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달 17일 취임식에서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AI는 필수가 됐다”며 “혁신적 연구 성과 도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AI 도입·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울산 기회발전특구 규모 1만 5000㎡ 커졌다

AI 데이터센터 구축하기로 확정
투자도 4000억→1조 5000억으로

울산기회발전특구면적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구축으로 대폭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반영한 울산 기회발전특구 변경지정을 30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하는 제도다.

고시에 따르면 데이터 운영 담당할 사업주체가 SK멀티유틸리티에서 SK브로드밴드로 변경됐고, 사업 규모도 기존

40MW에서 100MW로 확대됐다. 또 사업 면적은 기존 2만 712㎡에서 3만 5775㎡로 늘렸고, 투자 규모도 4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직접 고용 규모도 25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됐다.

투자 규모 1조 5000억원은 SK에서 대지 매입, 건축, 설비투자 등에 투입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서버 구축 등에 투자하는 5조 5000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투자 규모는 7조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변경 지정으로 생산 유발 1조 5562억원, 부가가치 유발 8412억원, 소득 유발 2338억원, 취업 유발 7572명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한국경제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A26면 사회

‘AI산업’ 날개 단 광주시, 국비 191억 확보

✓ 韓 대표 AI도시로 한발짝

‘모빌리티 AX 실증랩’ 본격 가동
500개 자율주행 상황 동시 실험

AI데이터센터에 GPU 자원 확충
국산 AI반도체 성능 검증도 착수

광주광역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사업단)에 따르면 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총 191억원의 AI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 AI사업단은 확보한 예산으로 AI 집적단지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 환경 고도화와 AI 반도체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3지구에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경.

AI사업단 제공

체 국산화 생태계 강화, 자율주행 기술 실증 기반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추경으로 확보한 30억원을 들여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한 ‘모빌리티 AX 실증랩’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AI 집적단지 내에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한다. 전국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AI 시뮬레이션 클라우드 플랫폼과 자율주행 멀티 가상환경 테스트를 위한 서버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AI사업단 관계자는 “최대

500여 개의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동시에 테스트하고, 대형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첨단 3지구에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 AI 데이터센터에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충한다. AI사업단은 96억원을 투입해 AI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추가 임대할 예정이다. 광주 AI 집적단지는 1단계(2020~2024) 사업을 통

해 88.5페타플롭스(PF)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했고 현재 44.3PF를 운영 중이다. 확보한 예산으로 A100(2.3PF), H100(26.8PF), H200(4.3PF) 등 총 33.4PF의 GPU를 추가 임차해 총 77.7PF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요가 늘고 있는 H100 및 H200 464개를 추가해 개발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로 했다.

AI사업단은 국산 AI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증·평가 사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65억원을 들여 서버·엣지용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금융·의료·제조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실증에 나서 상용화를 앞당긴다. 이를 위해 고도화 검증 장비 2종을 새롭게 도입하고, 4개 시범 프로젝트로 산업별 적용 가능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오상진 AI사업단 단장은 “추경 확보 예산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크게 늘리고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와 자율주행 실증 환경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광주가 ‘AI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실속있는 금융 IT 자동화… 레드햇 ‘앤서블’

**롯데카드, 재해복구 감축 효과
해외기업, 업무·조직 혁신 수요**

미국 IBM의 소프트웨어(SW) 자회사 레드햇의 ‘앤서블’(Ansible)을 도입한 한국 금융회사들이 정보기술(IT)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앤서블은 10년이 넘는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솔루션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대규모 인사이트를 사람을 거치지 않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자동화 엔진이다.

30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레드햇 앤서블을 사용한 이후 큰 도입 효과를 봤다.

재해 복구 시나리오 전 과정을 코드 기반으로 자동화해 복구 시간을 절반 넘게 줄였다. 보안 영역 자동화를 통해 과거 수작업으로 하던 보안 시스템 작업을 실시간 처리해 서버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있다.

롯데카드 측은 “금융 IT 측면의 재해

복구, 점검, 보안 등 핵심 업무를 자동화해 업무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반복 업무 부담을 줄이며 근무 방식이 개선되자 운영 인력의 워라밸도 향상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는 AI옵스(인공지능 기반 IT 운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레드햇 앤서블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 생성형 AI 기술과 앤서블을 결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AI 기반의 업무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하다. 업무 자동화를 통해 근무 시간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서비스 대응 시간을 개선하고 있다.

IT 보안을 강화하며 조직 문화도 혁신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크레디아그리콜 그룹 내 IT 조직은 수만대의 서버 전반에 앤서블 플랫폼을 도입했다. 자체 커뮤니티 자동화 솔루션을 앤서블로 전환한지 1년 만에 투자수익률(ROI)을 달성했다. 직원 1인당 작업 시간에 해당하는 2만대의 ‘리눅스’ 서버 운영도 자동화했다.

미국 디지털 은행 겸 결제 회사인 디스커버는 직원 분류와 데이터 추출 요청 검증 및 처리를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연간 약 2만시간을 절약했다.

콜센터 상담 직원도 통화 시 고객 요구 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자동 조정을 통해 회계 담당 직원도 더 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레드햇은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 과거에는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AI 도입보다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필수’가 됐다고 말한다. 최근 앤서블 고객사 등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앤서블에 대해 AI옵스의 실행력을 담당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한국레드햇 상무는 “AI 기반의 인사이트를 실행 가능한 자동화로 이어지도록 해 분산된 다양한 도구와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워크플로우로 연결해 준다”며 “AI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표준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 sone@

수익배분 갈등 겪던 MS·오픈AI 화해무드

양측 핵심기술 이용 계약 막바지 협상
타결 땀 MS 최신 AI 계속 이용 가능

수익 배분 비율을 두고 갈등이 고조됐던 마이크로소프트(MS)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속적 협력을 위한 계약 협상을 이어가며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MS가 오픈AI의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기업은 오픈AI가 인간 수준의 범용인공지능(AGI)이라는 목표에 도달해도 MS가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건을 논의하고 있으며, MS는 오픈AI가 영리법인 전환 시 지분을

30~35%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타결되면 오픈AI가 MS와 독자 노선을 취할 여지를 둔 기존 계약조건은 무효화되고, 협력관계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약조건에 따르면 오픈AI는 계약이 만료되는 2030년 이전이라도 AGI를 달성하거나 1000억 달러 투자수익금 제공 능력을 증명할 경우 MS의 오픈AI 기술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 신규 계약 추진은 지난달 최고조에 달했던 양사의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투자금 확보를 위해 영리법인 전환이 다급했던 오픈AI는 약 14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한 최대 투자자 MS의 동의를 얻어내야 했지만, 지분 산정 비율을 두고 갈등을 노출했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

AI 인재 뺏기고 中 직영매장 닫고 '한때 1위였는데...' 추락하는 애플

한 달간 메타로 4명 이적 '굴욕'
중국시장 점유율도 5위로 밀려

한때 시가총액 세계 1위였던 애플의 '굴욕'이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 인재의 연이은 이탈과 함께 처음으로 중국 매장 철수를 결정하는 등 AI 전환기의 주도권 경쟁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의 핵심 AI 연구원이었던 보웬 장이 조만간 회사를 떠나 메타의 '초지능 연구소'에 합류할 예정이다. 장 연구원은 애플 AI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을 구축한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AFM) 팀의 일원이었다.

최근 한 달간 애플의 핵심 AI 연구원이 메타로 옮긴 사례는 공개된 것만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애플 AI 모델 개발을 총괄하던 임원 뤼밍 광이 2억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고 메타로 이직했다. 같은 AFM팀 연구원 2명도 최근 애플을 떠나 메타에 합류했다. 애플은 지난해 자체 AI 엔진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지만 이후 핵심 기능인 음성비서 시리(Siri)에 대한 개선 작업이 무기한 연기

되고 있는 상태다.

아이폰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애플은 처음으로 중국 직영매장의 문을 닫기로 했다. 29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애플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라오닝성에 있는 다렌 백년성 지점 매장을 다음달 9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문을 연 이 지점은 다렌 지역의 첫 애플 매장이었다.

애플 측은 구체적인 폐점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내 아이폰 판매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이폰은 2023년만 해도 중국에서 25% 가량의 점유율로 1위를 지켰지만, 이후 점차 약세를 보이다가 올해 2분기 5위까지 밀려난 상태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중국 본토 스마트폰 점유율 1위 기업은 화웨이(18%·1220만대)였다. 이어 비보(17.4%·1180만대), 오포(15.7%·1070만대), 샤오미(15.3%·1040만대) 순으로 1~4위까지 모두 중국 토종 브랜드가 차지했다. 애플의 점유율은 14.9%(1010만대)로 5위에 머물렀다.

양윤선 기자 sun@kmib.co.kr



딥시크로 전투기 개발 ... 중국 정부가 'AI 인큐베이터'

(중국 생형 AI 모델)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

한 달 전 재단법인 한 반도평화만들기의 '평화 오디세이 2025'에 참가해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의 첨단 산업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 기업을 방문했을 때 네 발에 바퀴를 장착한 로봇이 앞에 놓인 장예물을 사람이 기어오르듯 올라가는 섬뜩한 모습에 다들 놀라워했다. 그러나 회사의 설명 중에서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하나의 성장 비법이 숨어 있었다. 이 로봇 기업은 중국의 전력망을 관리하기 위한 로봇을 판매하면서 초기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그 돈으로 더 수준 높은 첨단 로봇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고 있었다.

전력망 관리용 로봇을 구매하는 곳은 국영기업인 중국전력망공사이고, 그 구매자금은 당연히 공적 재원이다. 중국 정부 관점에서는 전력망 인프라를 관리해야 하는 공적 임무, 즉 '국가의 일'을 민간의 첨단기술을 구매해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효과가 있다. 다른 한편, 로봇기업 관점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면서 기술 개발의 아이디어를 얻고, 게다가 공공 매출로 얻어진 자금으로 더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일을 더 잘 달성해서 좋고, 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와 테스트베드에 투자까지 얻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윈윈이다.

중국 배터리기업, 공공매출로 급성장

중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첨단기술을 키워나가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딥시크가 중국의 첨단 전기 개발 과정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 또한 딥시크의 차세대 버전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자금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터리 기술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2019년 중국 선전시의 2만 대 가까운 공용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교체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많은 시행착오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고, 특히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다. 당연히 배터리 기업들은 공공매출을 마중물 삼아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정부는 기업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버스로 교체하면서 도시의 오염 수준을 극적으로 낮추는 공적 효과를 얻었으니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기술뿐 아니라 기술 선진국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중국발 에너지 신기술이나 우주기술, 양자기술 등이 사실상 거의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키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일 수행하며 기술 선진국 돼

이것은 중국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전통의 기술 선진국들이 자랑하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국가의 일을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 기술들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애플이 아이폰4를 출시하면서 시리(Siri)를 선



지난 28일 상하이 세계박람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대회(WAIC)에서 한 어린이가 인공지능 기술로 원격 조종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보였다. 세계 최초로 손안에 인공지능 비서를 갖게 만들었다는 소식에 '역시 애플!'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시리의 음성인식 기술은 지금 같은 인공지능의 광풍이 불기 한참 전인 2003년 에미 국방부가 전투 현장에 필요한 음성인식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문제를 출제한 프로젝트(CALO)에서 탄생했다.

애플 시리도 미 정부 요청으로 탄생

그 해법을 제시한 연구자와 기업가들이 만든 벤처회사 시리를 애플이 2억 달러에 인수했고, 아이폰4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애플이 자랑했던 시리 기술은 미 국방부가 국가 안보라는 국가의 임무를 혁신적 기술로 더 잘 달성하기 위해 문제를 출제했고, 민간에 자금과 테스트베드를 제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민간의 혁신 기업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가로 공공 자금을 받아 핵심 기술을 키워나간 전형적인 민관 협력 사례다.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 mRNA 백신 기술, 태양광 기술 등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주도의 핵심 기술들은 하나같이 미국 정부가 국가의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들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 기술을 나사가 구매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압포를 넣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첨단의 재활용 로켓 기술도 사실상 미국 정부가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구매를 통해 키워낸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육성 적극 나서야

이처럼 국가의 일을 첨단기술로 해결하면서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부

시키우는 '기업가형 국가' 중국 공공부문에 민간 첨단기술 활용 정부 지원으로 큰 배터리, 세계 제패 정부는 핵심 전략기술 확보 효과

한국 정부, 어떤 역할 해야하나

2019년 혁신조달 첫발 댔지만 정책 적용범위 좁고 기술 미흡 산업 연계 등 범부처 지원 필요



AI 기업을 지원하는 상하이 모수공간. 한 직원이 AI 기술을 접목한 기타를 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의 역할을 '기업가형 국가'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즉 기업들이 시장의 수요에 기반하여 산업을 열어가듯이 정부 또한 공적임무를 수요로 활용해 마치 민간의 기업가처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 표현은 비교적 최근에 명시적으로 제시됐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실제로 많은 국가가 실행하고 있었고, 어쩌면 모두가 아는 알려진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미국과 중국의 사례들이 모두 기업가형 국가의 역할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첨단의 기술적 해법을 요구하는 국가의 일들이 차고 넘친다. 국방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보건 의료 분야의 백신과 같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에 관련된 많은 공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기후환경, 재난, 교육, 행정, 치안 등 사실상 정부의 모든 부처가 공적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 문제를 더 수준 높은 첨단기술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할 일은 넘쳐난다.

AI 기술, 정부가 써야 실용화 빨라져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국가적 과제로서 떠오른 인공지능 기술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은 기반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엔가 활용될 때 비로소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수요처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뜻이다. 게다가 그 수요의 난도가 높아져 풀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귀한 테스트베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수요처가 공공부문 곳곳에 널려 있다. 이런 문제를 연구자나 기업이 해결하도록 정부가 문제를 출제하고 해법을 제시한 데 대해 대가를 지불하면,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매출이 일어나고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결림돌 되는 규제 과감히 걷어내야

그러나 '기업가형 국가'를 실현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관행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가적 일을 해결하는 첨단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결과물을 구매해서 활용해야 하는 부서로 넘어가면 없던 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규정을 들이대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구매부서의 실무자들이기 때문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공적 임무를 목표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개발된 결과물이 실제로 공공 부문에서 채택돼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곳과 실제

구매하고 활용하는 곳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국가의 일을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해결하도록 문제를 출제하고, 그 결과물을 채택해서 활용한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혁신조달 강화-전담기관 설치 필요

이제부터라도 국가의 일을 첨단기술로 해결하면서 산업을 열어가는 '기업가형 국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기업가형 국가'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각 분야가 담당하고 있는 공적 임무 가운데 첨단기술, 특히 최근에는 첨단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런 공적 임무를 첨단기술의 목표로 제시하는 전담기관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미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일을 전담하면서 인터넷, GPS, 인공지능, 자율차, 휴머노이드 등의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육성 육성을 선도해 왔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도부터 기업가형 국가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혁신조달'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도입됐고, 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사업법도 개정됐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미국이나 중국의 사례에 비하면 아직까지 첨단기술의 개발과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에는 정책의 적용 범위가 좁고, 대상 기술의 수준도 미흡한 점이 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기업가형 국가' 전략으로 고도화시켜야 하고, 기술개발 정책이 산업 정책과 연계하는 등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 또한 많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가의 일을 수행하면서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업가적 마인드, 즉 '기업가형 국가'에 대한 모두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정치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러시

✓ 美 '달러 코인' 법제화 발맞춰 ... 여야 '이슈선점 경쟁'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며 시장의 관심이 커지자 여야 의원 모두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연내 관련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야 모두 스테이블코인 법 발의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내놔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8일 동시에 법안을 냈다. 두 의원의 법안은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명시해 발행과 유통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국회 정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곧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이 낸 법안은 큰 틀에서 유사하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의 발의안에는 공통적으로 발행을 금융당국이 인가제로 관리하도록 하고, 발행사 자기자본을 50억원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 예금·단기채 등을 100% 이상

발행 인가제·자기자본 50억 등 기본틀 유사 ... 이자 놓고 엇갈려
與 '디지털자산위' 설치 제안도

李도 공약 ... 연내 처리 가능성
한은 등 통화당국 반대는 변수

예치해야 하는 점도 비슷하다. 사고가 나면 우선 변제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이도 일부 있다. 안 의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 안 의원은 "초기 단계에서 통화를 과도하게 대체하면 안 된다"며 "투자 상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법안은 입장이 다르다. 이자 지급 허용을 인센티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통화정책 혼선은 변수

여야 의원들이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연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대통령 공약 사안이어서 여권이 힘을 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한국은행 등 당국의 우려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위 소

발의자	정의	발행사 자본요건	이자 지급	과징금 상한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50억원	정의 없음	20억원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50억원	지급 금지	50억원
김은혜(국민의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50억원	지급 허용	20억원

※과징금은 중요 사항 허위 기재 기준

자료: 국회

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법안 취지에는 반대가 없는 분위기" 라면서도 "자칫 한은이 여러 개 생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는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 내부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권을 넘어 비은행권까지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발권력이 흔들리고 통화정책 주도권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 설명회를 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안 의원 법안에는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통해 통화·외환당국의 의견을 적시에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기관들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상환 전반에 개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 의원이 내놓은 법안도 정부위원회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7일 자기자본 기준 10억원 등 초안을 공개한 강 의원은 현재 정부 측과 긴밀한 법안 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 대 1 교환가치를 지닌 암호화폐다. 가격이 안정적인 데다 결제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없다. 미국은 이미 이달 18일 달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마쳤다. 신상훈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미 국제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금융 주도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

LG AI ‘엑사원 4.0’ 성능, 국내 1위·글로벌 11위

LG AI연구원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 4.0’이 AI 성능 분석 전문 업체 아티피셜어널리시스의 평가에서 세계 11위, 국내 1위에 올랐다. 엑사원 4.0은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추론 AI 모델을 하나로 결합한 국내 첫 하이브리드 AI로 지난 15일 공개됐다.

30일 LG AI연구원에 따르면 엑사원 4.0은 아티피셜어널리시스 평가

에서 미국 앤스로픽의 최상위 모델인 ‘클로드 4 오피스’와 함께 64점대를 기록하며 11위에 올랐다. 오픈 웨이트 모델(코드와 가중치가 공개) 기준으로 는 큐원3, 딥시크 R1, GLM-4.5에 이어 4위다.

한국 모델 기준으로 1위를 기록했다. 코딩 분야에서 7위, 수학 분야에서 10위에 오르며 영역별 ‘톱10’을 달성했다. 아티피셜어널리시스는 추론, 지식, 과

학, 코딩, 수학 등 7개의 고난도 성능 평가를 종합해 점수를 산정한다. LG AI 연구원은 AI 모델 개발 기업 중 8위를 차지했다.

이에 앞서 LG AI연구원이 올해 3월 공개한 국내 최초 추론 AI 모델 엑사원 딥과 엑사원 4.0은 미국의 비영리 AI 연구기관 에포크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 리스트에 연이어 이름을 올렸다. 이 리스트는 미국 스탠퍼드대가 매년

추론·지식·과학 등 7개 종합 평가 ‘오픈AI 대항마’ 앤스로픽과 나란히

발간하는 AI 보고서의 원천 자료로 활용된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이번 결과는 LG의 엑사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프런티어 AI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췄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며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위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익명 기자

LG전자, 웹OS 앱 개발자 진입 문턱 낮춰

가상 TV환경서 개발 쉽게 클라우드 테스트 랩 제공 “혁신 플랫폼 생태계 확장”

LG전자가 이달부터 세계 개발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TV 플랫폼 ‘웹OS (webOS)’ 앱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가상 테스트 환경 ‘웹OS 클라우드 테스트 랩’을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가상 환경을 통해, 개발자가 값비싼 TV 없이도 앱 호환성을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클라우드 테스트 랩을 이용하면 개

발자는 PC에서 웹 인터페이스에 접속해 모든 테스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앱 개발 패키지(IPK)를 업로드한 뒤, 원하는 TV 모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해상도, 시스템 온 칩, 웹OS 버전 등)을 선택하면, 해당 스펙을 가진 가상의 TV 환경이 즉시 생성된다.

개발자는 가상 TV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앱의 구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지원되는 테스트용 TV 환경은 LG전자 TV제품군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웹OS 개발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까지 개발자는 여러 종류의 TV를

확보하고 테스트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했다.

외부 개발자는 LG전자의 클라우드 랩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사양의 테스트 환경을 즉시 생성하고,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클라우드 테스트 랩이 웹OS 개발 진입 장벽을 낮춰 보다 많은 글로벌 개발자가 웹OS 생태계에 합류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앱들이 빠르게 출시돼

고객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웹OS는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는 물론, 개발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혁신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확장 중”이라며 “보다 많은 고객에게 차별화한 TV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OS는 LG전자 스마트TV 플랫폼이다. 기본 탑재되는 LG 채널에는 글로벌 채널 4000여개가 탑재됐다. 게임과 오디오 앱 등도 지원한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

美 IPO 앞둔 알폰소, 내달 19일 국내서 비전 공유

웹OS 기반 LG애드솔루션 운영

LG전자 자회사 제니스가 최대주주인 알폰소가 하반기 미국 증시에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알폰소는 다음 달 19일 국내에서 상장 규모와 전략 등 IPO 관련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알폰소는 창립자이자 이사회 멤버인 아시시 초디아와 마이클 휴즈 CEO, 서지 매타 글로벌 광고세일즈 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방한, IPO 전략과 글로벌 확장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LG전자는 2020년 독자 스마트TV 운영체제 웹(web)OS 플랫폼 광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 광고·콘텐츠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알폰소를 인수했다.

알폰소는 LG전자 웹OS를 기반으로 세계에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LG애드솔루션을 운영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세계 2억2000만대 이상의 TV에 웹OS가 탑재됐다.

알폰소는 미국 IPO를 통해 △사업의 글로벌 확장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IPO를 통해 TV가 콘텐츠·쇼핑·광고·인공지능(AI) 등이 통합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알폰소는 “IPO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주체들과 더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확장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신영기자 spicyzero@etnews.com

LG전자 '인도판 마곡' 조성해 첨단기술 고도화

현지 R&D 공들이는 K가전

글로벌사우스 공략에 나선 LG전자가 인도에 서울 마곡에 버금가는 연구개발(R&D) 거점을 조성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30일 "LG가 국내 R&D 인력 2만여 명을 마곡으로 모았듯 인도에서도 '제2의 마곡' 같은 R&D센터를 짓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현재 인도 벵갈루루에서 소프트웨어(SW)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LG전자는 일찌감치 인도에 연구 거점을 마련했다. 연구소의 문을 연 시점은 1996년 3월로 인도법인 설립(1997년)보다 이른다. 인도 R&D 시설에서 근무하는 개발자는 2000명가량으로 LG전자 해외 R&D 거점 중 베트남법인과 더불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현지 개발자는 한국 본사와 긴밀하게 협업해 TV 운영체제(OS)인 웹OS 플랫폼과 차량용 솔루션, 차세대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한다.

인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인도 R&D 인력의 우수성을 체감한 LG전자는 향후 현지 R&D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내년 초 LG전자 인도법인이 상장할 경우 유입되는 자금 일부도 종합 R&D 기지 조성에 투입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세계 3대 IT인재 시장...인력풀 우수
삼성도 1만명 규모 연구센터 운영
LG전자 인도법인 내년초 상장 추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시장은 가전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업 성장 기회가 크다"면서 "LG전자뿐 아니라 다른 LG 계열사의 R&D 기능을 합쳐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그리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역시 인도에서 R&D에 공을 들이고 있다. 1996년 선행 기술을 다루는 벵갈루루 연구소에 이어 2002년 델리 연구소(TV), 2007년 노이다 연구소(모바일) 등을 설립했다. 반도체 부문에선 2004년부터 벵갈루루 연구소 산하에 삼성전자 반도체 인도 연구소(SSIR)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이 지역에 두 번째 R&D센터를 오픈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R&D 인력만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는 인도 연구소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인공지능(AI) 기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한 삼성 갤럭시 인도 버전과 갤럭시AI 힌디어 기능, 인도 지역 언어 솔루션 등도 개발하고 있다. 노태문 삼성

전자디바이스경험(DX)부부장 직무대행 사장이 올 해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글로벌 모바일 전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직후 곧바로 인도로 이동해 현지 사업을 점검할 만큼 인도는 삼성전자의 주요 시장이자 R&D 거점으로 꼽힌다.

양 사가 인도 시장 진출과 함께 R&D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 풀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초중고에서 코딩을 비롯한 SW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며 미국·중국과 함께 3대 정보기술(IT) 인재 시장에 속한다. 인도의 무역 관련 정보를 망라해 제공하는 나스콤에 따르면 인도에서 AI 및 데이터 과학기술을 갖춘 인력은 41만 6000명으로 전 세계 1위인 미국(67만 6000명)을 뒤쫓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구글)와 사티아 나델라(MS) 등 빅테크를 이끄는 다수의 최고경영자(CEO)도 인도 출신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14억 6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거대 시장으로 맞춤형 솔루션 개발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서 "여기에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AI와 SW 중심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R&D 분야에서 인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우리 기자



LG전자가 8월 27일까지 텀블러 전용 세척기 'LG 마이컵' 사용 인증 이벤트를 연다.

LG전자, 텀블러 전용 세척기 'LG 마이컵' 사용 인증 이벤트

LG전자가 텀블러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텀블러 전용 세척기 'LG 마이컵(myCup)' 사용 인증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는 고객이 텀블러를 마이컵으로 세척한 사용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자신의 SNS 계정에 #텀블러세척기, #LG마이컵, #스타벅스텀블러세척기 등 해시태그와 올리면 참여 가능하다.

마이컵 앱에서는 스타벅스를 비롯해 주변의 마이컵 설치 장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로, 참여자 중 2000명을 추첨해 LG 스탠바이미 2, LG 티운 미니,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김신영기자 spicyzero@etnews.com

LG 2년 연속 ‘인간공학적 설계’ 최다 수상

로봇청소기 등 총 7개 상 받아
삼성, 식기세척기 최고제품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인간공학설계 분야 최고 권위의 ‘2025 인간공학디자인어워드’에서 나란히 수상했다.

LG전자는 인간공학디자인어워드에서 ‘최고제품상’(Best of Best)을 포함해 총 7개 상을 받으며 2년 연속 ‘최다 수상’ 영예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인간공학디자인어워드는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 용이성 △효율성 △기능성 △안정성 △감성 품질 등을 평가한다.

LG 로봇청소기는 최고제품상을, 텀블러 세척기인 ‘LG 마이컵’과 세계 최초 무선·투명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는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가 최고제품상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가볍게 누르면 열리는 ‘오토 오픈 도어’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와 ‘비스포크 AI 스타’ 로봇청소기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LG 스탠바이미, 호텔·병원 ‘필수템’ 각광

벽걸이TV 한계 극복...판매량 급증

LG전자의 이동식 스크린 ‘스탠바이미’가 안방을 넘어 럭셔리 호텔과 리조트, 병원 등에 진출하며 B2B(기업간 거래)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30일 LG전자에 따르면 서울 남산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최고층 야외 테라스에서 프리미엄 디너와 함께 LG 스탠바이미2(사진)를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자쿠지석을 택하면 물에 몸을 담근 채 스탠바이미로 음악이나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며 서울 야경을 볼 수 있다.

최근 리조트와 프리미엄 호텔에선 LG 스탠바이미가 LG 스타일러, 고급 커피머신 등과 함께 ‘비치(備置)형 가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더불어 침실·욕실·테라스 등 다양한 공간에 비치할 수 있는 이동성을 앞세워 영역을 확장 중이다.

이동식 스크린이라는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이끈 LG 스탠바이미는 기



존 벽걸이 TV의 한계를 극복하며 호텔·리조트·병원·산후조리원·교육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특히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는 점은 병실이나 산후조리원처럼 공간 변화가 잦고, 설치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큰 강점으로 꼽힌다.

일부 대학에선 층별 커뮤니티라운지에 LG 스탠바이미를 비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

체질개선 속도 내는 LGD... “OLED사업 강화·AI 전환으로 경쟁 우위”

오늘의 DT인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정철동(사진) LG디스플레이 사장이 OLED 사업 강화와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LG디스플레이는 올 상반기 65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2021년 이후 4년 만의 흑자 전환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 손익 개선과 광저우 LCD 공장 지분 매각 이익 등 기타 손익이 반영된 효과다.

영업손익은 826억원 적자를 냈지만 작년 동기보다는 5000억원 개선됐다. 2024년 연간으로는 5606억원 영업손실을 입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2조원 가량 적자폭을 축소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정 사장이 2023년 12월 부임한 이후 꾸준히 강조해 온 체질개선의 결과로 풀이된다. 정 사장은 취임 이후 OLED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과 AX 분야를 가속하고 있다.

OLED 중심 사업구조 전환은 숫자가 보여준다. OLED 비중은 2020년 32%에서 2022년 40%, 지난해 55%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OLED로

발생하는 것으로, 대형 LCD 공장 매각으로 OLED로의 전환은 더욱 속도가 붙었다. 2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전 분기, 작년 동기 대비 OLED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AX의 중요성도 지속 강화 중이다. 정 사장은 최근 전 임직원에게 보낸 CEO 레터를 통해 “회사는 최근 DX(디지털 전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목표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경

적이다. 이를 통해 2주 소요되던 공정을 3일만에 해결하고, 연간 20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사내에서는 자체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를 구축해 사용 중이다.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해, 디지털 업무 혁신을 본격화했다. 현재는 ‘화상회의 자동 통번역’과 ‘AI 회의록 자동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메일 AI 요약’, 보고용 P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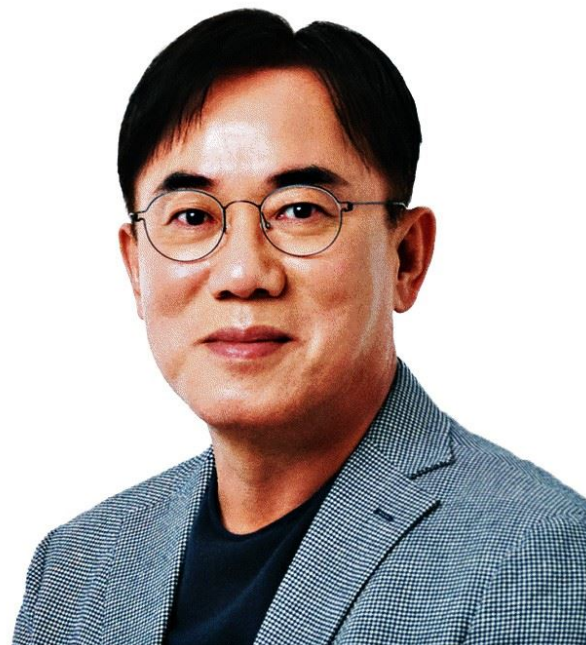
**상반기 6537억원 당기순이익 기록... 4년만에 흑자 전환
해마다 반복되는 ‘상저하고’ 사업적 계절성 관행 버려야**

쟁력인 적기 개발, 수율, 생산성, 원가에서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일반 업무에서도 생산성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LG디스플레이는 AX 역량을 강화해 디스플레이 공정, 업무 생산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OLED 공정에 AI 생산 체계를 도입해 공정 효율화와 수율 향상을 확보한 것이 대표

조안까지 작성해 주는 ‘문서 작성 어시스턴트 기능’ 등 보다 고난이도의 AI 업무로 확장하며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는 일 평균 업무 생산성을 이전 대비 약 10% 향상시켰으며, LG디스플레이는 3년 내 업무 생산성을 30% 이상 높여갈 계획이다. 정 사장은 지난 28일 파주에서 상반



기 성과와 하반기 목표를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 ‘CEO 온에어’ 자리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상반기 원가혁신과 품질개선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며, 체질개선과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 확보에 힘쓴 결과

라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특히 하반기 관세 변동, 소비 둔화,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원가 혁신 가속화를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근원적 원가 체질

개선이 최우선 과제다. 원가혁신은 생존의 조건이며, 품질은 자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라며 품질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각과 시도로 혁신을 앞당겨 매월, 매분기마다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마다 반복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사업적 계절성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사장은 특히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덕분에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 올해는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 실현하고, 내년에는 성과를 더욱 가시화하자”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정 사장 주도에 따라 조직문화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하반기 조직문화 캠페인으로는 ‘칭찬데이’를 실시하고 매일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진정성을 담아 선후배, 동료에게 칭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정 사장은 “칭찬과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어 가자”며 칭찬의 습관화와 일상화를 임직원 모두에게 전했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LG엔솔 6조 초대형 수주 테슬라에 배터리 공급할듯

ESS용 美 현지생산 유일
지난해 매출의 23% 물량
2028년까지 3년 공급계약
협의를 따라 최대 7년 연장도

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동명·사진)이 6조원 규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상대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해외에서 43억 900만달러(약 6조원) 규모 LFP 배터리를 수주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 25조6000억원의 23.2%에 해당하고, 단일 계약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주다. 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또 고객과 협의에 따라 총 계약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계약 금액과 기간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미국에서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ESS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만큼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계약 상대방일 것으로 점치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삼성전자와 23조원 규모 인공지능(AI) 칩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데 이어 LG에너지솔루션과도 협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관세 등에 따라 중국이 아닌 미국 내 기업 중 LFP 배터리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 배터리 기업 중 오토모티브, 테네시주, 미시간주 등 미국 내 가장 많은 생산기지가 있다.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을 중심으로 ESS 배터리 수주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지난 3월에는 테슬라,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둔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 델타일렉트로닉스와 4기가와트시(GWh) 규모,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최대 8GWh 규모 ESS용 LFP 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주요 배터리 업체 중 미국 내 ESS용 LFP 전지의 대규모 양산 체제를 가동한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다. 지난달 초부터 미시간 공장에서 통셀 기반 ESS 전용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다. 애초 애리조나에 신규 공장을 건설해 2026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해온 미시간 공장 공간을 ESS용으로 신속히 전환해 생산 시기를 1년 앞당겼다.

블룸버그NEF는 미국 내 ESS 누적 설치량이 2023년 19GW에서 2035년 250GW로 1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ESS시장 내 LFP 배터리 점유율은 80%에 달했다.

박승주 기자



“상담사 돕는 AI 비서… 고객 대화 의도·맥락 먼저 파악”

LG유플러스 ‘AI 상담 어드바이저’ 개발진 인터뷰

상담 분석, 필요한 내부 정보 검색
통화당 연결 대기 시간 17초 줄여
자사 넘어 서비스 제공 확장 준비

모니터에는 빼곡히 들어찬 전산 시스템 화면이, 옆에는 덕지덕지 붙여진 메모가, 귀에는 전화 헤드셋이, 손은 계속해 키보드를 두드리며 고객의 의문을 해소하는 곳인 통신사 고객상담센터. 수많은 상담사들이 바빠 일하는 이곳에도 인공지능(AI)가 불러온 변화가 찾아왔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고객의 질문을 이해하고 맞춤형 상담 내용을 추천하는 ‘AI 상담 어드바이저’를 도입해 고객 통화당 연결 대기 시간을 평균 17초, 통화 시간을 평균 30초 줄였다고 밝혔다. 월 합산 117만 분의 통화 시간이 감소한 것이다.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사옥에서 최근 만난 AI 상담 어드바이저 실무 개발진은 상담사의 ‘AI 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입을 모았다. 고객경험(CX) 엔지니어링을 맡은 손상준 씨는 “상담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상담 가이드에서 정보를 찾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이라며 “이 부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고 말했다.

이 어드바이저는 상담사와 고객의 상담 내용을 AI가 스스로 분석해 기업 내부 정보 중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고 답변을 만드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는 반드시 실제 인용 문서를 근거로 하도록 설계해 생성형 AI에서 종종 나타나는 ‘허위 생성(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최소화했다. 손 씨는 “사용자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AI 상담 어드바이저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다. AI 구동의 핵심 요소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수급도 그 중 하나다. 개발·운영(DevOps)을 맡은 정진수 프로덕트 매니저는 “AI 상담 어드바이저에서 쓰는 AI를 구동시키려면 GPU가 필요한데 그 서버 자원은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며 “필요한 GPU 서버 자원을 확보하려고 LG유플러스를 담당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 직원과 만났고 팀원들이 새벽 근무를 번갈아 하면서 끌어모았다”고 말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경험이었다”고 정 매니저는 덧붙였다.

상담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업무 환

경을 개선하는데도 AI 상담 어드바이저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사용자 화면 등 프론트엔드 부분을 담당한 박성혜 씨는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닌 업무에 쓸모 있는 도구를 만들려고 상담사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함께 작업했다”며 “상담 현장에 가서 업무 환경을 조사했고 현장에서 원하는 단축키 기능이나 화면 배색 변경 기능 등을 사용자 화면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객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문자화하고 연동하는 작업을 한 하연호 씨는 “알아듣지 못했던 고객의 문장을 AI를 이용해 변환하니 어려움 없이 상담했다”는 상담사의 피드백을 받으니 뿌듯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AI 상담 어드바이저를 자사 고객센터에 적용한 데 이어 다른 분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정 매니저는 “좋은 상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상담센터에서 널리 쓸 수 있는 AI 상담 어드바이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 고객 상담이라는 틀을 넘어 다른 업종의 고객 상담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마켓리서치에 따르면 콜센터 등 국내 AI콘택트센터(AICC) 시장은 2030년 3억5,088만 달러(약 4,758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욱 기자



LG유플러스의 ‘AI 상담 어드바이저’ 개발 실무를 맡은 박성혜(왼쪽부터), 하연호, 손상준, 정진수씨가 최근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사옥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